

큰스님 수행한담

불제자의 의무입니다”



1968년 통도사 금강계단앞에서 찍은 전등염승 졸업기념사진. 왼쪽 아래 월하스님, 윤하스님, 영암스님, 왼쪽 위 원운스님, 홍법스님, 자란스님.

을의 중흥을 의치신 분이예요. 강사 선사는 많은데 용사가 없다는 거죠. 장장 11년을 서울대 도서관에서 율장주석 등을 친히 베껴 율장을 연구하셨지요. 사미율의 등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율장이나 계본은 다 스님이 펴 내신 것입니다. 정화를 계기로 10여년동안 율장 수만권을 나눠주셨어요. 그전엔 사미계만 받고 마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율장이 알려지면서 구족계를 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래 들어 유일하게 율의 틀을 닦으셨습니...

각원장 총장까지 할 건 다해본 셈입니다. 총장은 86년부터 90년까지 맡았었지요. 불교사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20여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해인사 강주생활을 하면서의 일이지요. 일본의 <망월불교대사전>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불교연구의 근간이 될만한 불교종합사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한 10여년 되었지요. 동국대 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추진해온 일이니까요. 처음 생각으로는 내가 60세가 되기 전까지 3~4권짜

경전공부 왜 하느냐
신심을 일으키기위해서
생활좌표 삼기위해서
이타행 실천위해서

했지요. 안타깝게도 지금 중년에는 불교 공부에 있어 자기분야를 넓힐만한 토대가 별로 없어요. 불교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수용해줄 곳이 거의 없는 현실이니까요. 젊은 학자들을 수용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가산 불교문화연구원을 만들게 되었지요. 개인 8년 동안 다양한 일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사전 편찬에 매달려 지금 <가산 불교대사전> '1' 편 두권을 올해 초에 출간했습니다. 불교사전을 본격적으로 편찬하면서 해설이 어려워져서도 안되고 잘못된 것도 없이 만들려고 애를 썼지요. 국어사전이며 백과사전이며 잘못된 해설이 너무 많아요. '입선'을 종이 열불러 방에 들어가서는 식으로 해설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

하는 이들이야 두루두루 경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 불자들은 경 한 가지라도 꼭바로 알면 팔만사천법문을 모두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나는 항상 불자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경전 공부를 왜 하느냐. 우선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출가스님이나 재가신도의 생활좌표를 삼기 위해서는 경전이 필수입니다. 이 두가지는 자기자신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신자라면 자기수행 뿐만 아니라 이타행 즉 타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질 때 여기에 부합되는 경전들은 꼭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선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법화경 관음보살보문품>을 봐야 합니다. 신심이 없으면 복지 실천도 되지 않고 자기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관음신앙이 강합니다. 수시로 신도들이 많이 의지하는 만큼 관음보살보문품을 읽어두는 것이 관심사에 딱 맞죠. 또 생활좌표로 삼기 위한 계가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름하고 술마시고 마음으로는 좋고 싶어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업력이나 습기를 이기기 위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출가도 재가도 다 해당되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법화경> 10종대 48경계를 생활좌표로 삼아야 해요. 많이 볼 것도 없고 계만 수시로 읽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바쁜 외중에 항상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타행을 위해서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보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읽어두면 좋지요.

요즘 신도자력에 오계수지가 들어가는 것같은데 참 잘된 일입니다. 스님은 스님의 신분이 있듯이 신도도 신도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입문자들에게는 엄숙한 분위기에 삼귀의를 시켜야 해요. 처음부터 부처님과 단단히 약속을 시켜 개종을 하려해도 부처님과 약속이 마음에 걸려서 개종을 망설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도 한달에 한번 정도 날을 잡아 초입문자에게 삼귀의를 일한 신도들에게 오계를 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자임을 자주 상기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최장수

(前 춘천여중 교장)

나는 40여년간 교직에 있다가 정년 퇴임을 했다. 퇴임식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공직자로서 교육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여생을 살겠다는 뜻의 인사말을 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바는 없었다. 퇴임을 하고 며칠이 지난 뒤, 산행을 하면서 절에 들르게 되었다.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부처님오신날 밤이면 식구 수대로 정성드려 놓고 만든 연등을 차마 밑에 달아 놓고, 촛불이 꺼질새라 밤새워 지키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나를 위한 삶이 무엇

취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실시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참가했다. 12월에 제주도 사찰순례를 마지막으로 여행을 끝내면서 밤에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참가한 사람에게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한라산의 흰눈이며 법화사 둘레의 감귤밭이며, 밤에 주지스님과 차를 마시며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생각난다. 이 여행이 다음 해에는 '불교문화체험기행'으로 시행되었고, 금년에는 주제를 '구산선문참선기행'으로 하여 선불교의 개산사찰인 구산선문을 들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전국 4곳, 촛불이 꺼질새라 밤새워 지키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나를 위한 삶이 무엇

정년퇴임후 시간표 작성 불교공부
'현대불교' 체험기행 3년째 개근

인지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춘천 석악사 강원 불교대학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막연히 알고 있던 불교가 차차 분명하게 마음에 잡히기 시작했다. 신심도 났다. 한 학기를 마쳤을 때 서울로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춘천을 떠나는 것도 섭섭했지만, 강원불교대학을 다니지 못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인연이려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울에 와 보니 불교를 가르치는 곳이 더 많았다. 공개법회를 하는 곳도 있었고, 참선을 지도하는 선원도 있었다. 물론 불교교양대학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불교에 대해 두루두루 공부할 양으로 '시간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표에 맞춰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받고 법문을 들었다.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 배울 공부를 위해 불교관계 서적도 사서 읽었다. 학교생활로 치면 예습과 복습을 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점점 빠져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보았다. 환희심이 생겼다. 이제는 문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에 가서 몸으로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싶었다. 97년은 문화유산의 해였고 이에 맞



4시쯤 절에 도착했다. 어두운 숲길을 걸어서 절로 올라간다. 흐르는 냇물소리와 나뭇가지들 스쳐오는 바람소리에서 부정설법을 듣는다.

번뇌망상을 다 놓아두고 일주문을 지나고 천왕문을 넘어선다. 굽속같이 몇 점의 불빛이 보이고 목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도량에 들어서면 고향에 돌아온 듯,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마음이 편안해진다. 감로수 한바가지로 입을 씻고, 예불에 참가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으리라 다짐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침공양을 하고 나면, 신록 위에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진다. 청정도량에 서린 천년의 선기에 마음을 닦으며, 엄숙해 오는 법월에 전율을 느낀다. 산사를 찾는 기쁨이다. 그래서 다시 절을 찾게 되는 것이다. 퇴임한지 벌써 4년이 된다. 그동안 사찰순례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일대사로 시간을 보냈다. '무상심미묘법 백천만劫難逢'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도 불교공부를 계속할 것이다. 어머니의 불심이 나를 부처님 앞으로 인도해 준 것 같아 눈물이 난다.

삼귀의·오계수지 부처님과의 약속이죠
'나는 불자' 항상명심 양심 속이지 마세요

요. 내년 봄 즈음 을사에 맞춰 쓴 은사스님 비석하고 탑 제작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얼마전에 비구니 월원이 봉녕사에 개원을 했는데 개장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강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통도사에서 2년 동안 수학한 뒤 다시 해인사로와 강원 강사생활을 11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중강이 없었어요. 강사한명이 4과목 이상 강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69년도에 해인사 주지를 맡아 있었습니. 소임을 맡으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되지요. 그래 72년 말이던가요. 동남아 인도를 거쳐 유럽 미국 일본 등지를 7개월여 동안 여행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달이나 머물렀지요. 여행을 하니가 시간이 잘 가더군요. 불교신문에 성지순례기를 연재하기도 했지요. 여행 갔다와서 75년부터 등대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년 동안 전입강사에서 시작해 교수 불교대학장 정

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역경원에 부탁해서 자료수집을 했지요. 자료를 뽑는 시간이 10년이상이 걸렸어요. 그 자료를 종합하고 원고만들고 인쇄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죠. 역경원에도 계속 부탁하기 어려워 몇 년동안은 손을 대지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내놓고 보니 사전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구요. 불교에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20세 전에는 선방을 다니며 참선했지만 그 후에는 강원에서 강의하고 공부하다보니 선방에서 본격적으로 참선하는 생활은 할 수 없었어요. 교학으로 참선수행을 제대로 못할 바엔 연구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라는 것이 한 두 사람이 연구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

고 있는 불교사전은 전부 15권으로 중화생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고 싶지요. 인용문에는 원문도 포함시켜 공부하는 이들이 공부하면 원전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도 했습니다. 그외도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가산학보> 등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석문은 강좌를 개설해 강의하고 역주한 것들을 모아 펴낸 금석문시리즈는 모두 6권이 나와있어요. 조선전은 비문이 모아진 것도 없어서 우선 총람을 펴내려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전문연구자 논문을 모아 1년에 한권씩 내기 시작한 학보도 7권까지 나와있어요. 우리 불자들도 요즘엔 법회나 교양강좌 등을 통해 불교공부를 많이 하고들 있지요. 불교의 경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문본이나 산스크리트 원전이 아닌 한글번역본으로 본다면 좀 혼자 보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경을 전문으로 공부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역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우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코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우화나 이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서 영감을 주었다. <전2권> 각권 32,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환속·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종돌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짓받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뜻한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린슨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절친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난 스님 안팎리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전2권> 신국권 | 각권 32,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